

작품 개요

「피난처 있으니」는 시편 46편을 가사로 하여 작곡자가 30세 때인 1952년 12월 6일 작곡되었다. 이 곡은 부산 피난시절 해군 군중감의 위촉으로 작곡된 곡으로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 보인 작품이다.

이 곡은 1952년 12월 9일 부산 향서교회에서 열린 현대음악학회 주최 <유경손 독창회>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(柳慶孫, 1921~2011)의 독창, 정진우의 반주로 초연되었고, 1977년 4월 6일 합창으로 편곡, 1987년 3월 20일 여성3부 합창으로 편곡되었다. 이 곡은 1954년 1월 20일 출판된 나운영의 2번째 가곡집 『다윗의 노래』(한국현대음악학회)에서 출판되었다.

(女聲)
 No. 1
 避仇處 있으니 (詩 46 篇)
 作詞 羅運榮 作曲 羅運榮 編曲
 피난처 있-으니 피난처 있-으니 환난을 당-한 자-이
 리 오 라
 땅을 이 번-하오 을 결 이 심-하
 피난처 있-으니 두 령 만 다
 美醫樂器店